

NOVEMBER 2003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The Newsletter of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발행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705-718 대구시 남구 대명 4동 3056-6 대구가톨릭대학병원 TEL: 053-650-4785 FAX: 053-623-1694
발행인: 박종한/편집인: 정한웅/등록번호 제2-124호/인쇄인: 김영길/제 작: 인성출판 중앙문화사 TEL: 02-717-5511(CD) FAX: 02-717-5515

권 두 인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를 준비하며

연 병 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차기 이사장, 한림의대)

2001년 춘계 학술대회로 기억되는데 박종한 당시 차기 이사장님이 2004년도에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지역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에게 묻는 것이었다. 당시에 나는 2004년도에 우리 학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니 국제 학회를 개최하는 것이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어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답한 것이 빌미가 되어 이 큰 행사를 맡아 진행하게 되었다. 그 후 국제노인정신의학회 본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IPA Scientific committee의 의장인 Joel Sadavoy 교수가 서울에 와서 개최 타당성을 조사해 간 후 작년 11월 홍콩에서 개최된 지역 회의에서 2004년도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확정되었다. 그 후 Joel Sadavoy가 작년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학회 임원진과 회의를 가지고 금년 9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노인정신의학회에서 다시 논의한 결과 2004년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를 하고 예산 규모와 조직위원회의 구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회의의 주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in Rapidly Aging Societies'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국제학술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할 조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조직위원회의 의장을 박종한 이사장, 공동의장을 연병길 차기 이사장이 맡고, Scientific subcommittee는 오병훈 부이사장, Host/Planning subcommittee는 연병길 차기 이사장, Coordinator subcommittee는 이민수 부이사장이 각각 subcommittee의 의장이 되며 각 subcommittee의 위원을 확정지었다. 특히 Coordinator subcommittee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유관 단체의 대표로 구성하여 이번 국제학술회에 정신과 의사들뿐만 아니라 타과 의사, 심리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아직 구성이 안 되었지만 앞으로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여 우리 학회의 고문이신 전 회장님들과 정신과의 원로 교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그 분들의 귀중한 경험을 학술대회의 운영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곧 First announcement에서 나가기에 하겠지만 현재 준비 중인 학회의 스케줄은 9월 8일 Opening ceremony와 Welcome reception이 열리고 9월 9일부터 9월 11일 오전까지 Satellite symposium 4회와 Plenary session 5회 Concurrent session과 oral and symposium 5회, Poster presentation 2회를 계획하고 있다. Satellite symposium과 Plenary session의 연자는 가능한 한 노인정신의학회계의 유명한 대가들을 모셔 유명학자들의 강연을 국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9월 10일에는 Gala dinner를 성대하게 열어 외국 인들에게 우리나라와 고유의 민속춤과 민속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또한 외국 학자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학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참석하여 등록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광범위한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금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생물정신의학회와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노인정신의학회에 포스터와 팸플릿을 배부하였고 11월 경 일본에서 열린 세계 노년학회에서는 booth를 제공받아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내년 7월경 국제학술회를 개최할 생물정신의학회와 협조하여 공동으로 국내외 홍보에 계속 힘쓸 것이다. 내년에는 생물정신의학회와 노인정신의학회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 해에 두개의 국제학회가 열린다는 것은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경축할 일이다.

이번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노인정신의학회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크게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 조직위원회에서는 유명 연자들을 초청하고 좋은 연제가 발표되어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들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당부하고 싶다. 첫째 국제노인정신의학회에 우리 학회 회원들이 많이 가입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싶다. 왜냐하면 많은 회원들이 가입함으로써 국제노인정신의학회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고 발언권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좋은 심포지엄이나 구연, 포스터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잔치를 벌여 놓고 이웃집 좋은 일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셋째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주시기를 빌고 싶다. 특히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참여를 격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들의 노인정신의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정신의학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학회를 준비하는 조직위원들의 한결 같은 염원은 내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2014년에는 국제노인정신의학회의 본 학회가 다시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조직위원회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 주 제 : 섬망, 그 이해와 치료지침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14:00~17:50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13:30-13:50

3:50-14:00 인사말

사 회 김 희 철(계명대)

박 중 한(이사장)

제 1 부 임상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섬망의 대표적인 증례 발표

14:00-14:30 대사성 질환 환자에서 발견되는 섬망

14:30-15:00 대뇌 질환 환자에서 발견되는 섬망

15:00-15:30 약물에 의한 영향으로 발생하는 섬망

15:30-15:50 Coffee Break

좌 장 이 정 호(인제대)

김 기 웅(서울대)

박 건 우(고려대 신경과)

김 도 관(성균관대)

제 2 부 섬망의 진료지침

15:50-16:20 섬망의 임상 개념과 역학

16:20-16:50 섬망 환자에 대한 평가 지침

16:50-17:20 섬망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한 평가

17:20-17:50 섬망 환자들에 대한 치료지침

좌 장 : 이 민 수(고려대)

윤 진 상(전남대)

김 성 환(동아대)

이 창 욱(가톨릭대)

이 동 우(인제대)

제 3 부 정기총회

■ 주 관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후 원 : 한국에자이주식회사, (주) 한국안센, 제일약품-세르비에

사노피-신테라보 코리아

• 총무이사회 소식 •

- 2003년 3월 22일 제1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03년 4월 18일 임시 총회가 개최되어 2003년도 예산안과 평생회비제도의 신설에 대한 인준이 있었습니다.
- 2003년 6월 20일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321호실에서 『한국 노인환자 장기요양서비스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03년 6월 21일 제3차 상임(실행)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 2003년 7월 23일 이사장단 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 2003년 8월 29일 긴급 임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 2003년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박종한 이사장이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 회원학회 대표자의 일원으로서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접견하고 우리 학회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치매를 과거와 달리 이제는 치료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
 - 2) 현재 치매와 뇌졸중 노인들을 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하여 2007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여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공적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대통령의 임기 내에 꼭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용 면에서도 심사숙고하여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지도록 해 줄 것
 - 이 중에서 ‘공적노인요양장기요양제도’는 대통령 임기 중에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 또한 이 자리에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주최하는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의 Asia-Pacific Regional Meeting에 축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대외 활동
 - 대한의학회에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의 editorial board로 김도관 학술이사를 추천
 - 사단법인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에 우리 학회가 신규 가입됨
 -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forum』에 오병훈 부이사장과 김도관 학술이사를 추천
 - 대한의사협회의 DRG 문의에 대해 우리 학회의 반대 의견을 제시

공지사항

- 2004년도부터는 지방에서 개최되던 춘, 추계 학술집담회가 폐지됩니다.
- 회원 연수교육인 CME 과정은 2년에 한번씩 시행되는 관계로 2004년도에는 CME 계획이 없습니다.
- 학술대회의 대회비가 현재 전문의 3만원, 전공의 및 준전문의 2만원에서 2004년부터는 전공의 및 정회원 전문의 2만원, 비회원 3만원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비회원보다는 특전이 주어집니다.
- 연회비가 2004년도에 3만원으로 인상이 되며, 2005년도에는 4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계획입니다.
- 평생회비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평생회비가 2004년도에는 3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될 계획입니다.

• 기획이사회 소식 •

- 노인정신의학 교과서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3년판으로 출간 예정입니다.
-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및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학술이사회 소식 •

- 2003년도 후반기에 개최되는 주요 학술행사 일정입니다.

1.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 한국노년학회 · 한국노화학회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합동 추계학술대회 일정
일 시 : 2003년 11월 7일(금) 오전 9:30~오후 5:30

장 소 : 서울여성프리자 아트홀

대주제 : 21세기 고령화사회와 노인요양보장

09:30-11:00 등 록

10:00-11:30 개회식

10:30-11:00 한국노화학회 발표

10:30-11:10 노인병원 및 요양시설 현황 · 발전방향

발표자 : 이신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사업팀장)

11:10-11:50 영양치료와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평가

발표자 : 유태우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11:50-12:00 종합토론

12:00-12:30 "멋진 노인" 시상식

12:30-1:00 점 심

14:00-14:30 한국노년학회 발표

주 제 : 노인요양보장의 보건 · 복지 통합서비스 구축

발표자 : 윤현숙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국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토론자 : 김용택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주희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5:30-16:00 휴 식

16:00-17:30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발표

주 제 :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가급여 관리체계

좌 장 : 신영민 (강남병원 정신과 전문의)

발표자 : 1. 선진국의 장기요양 서비스체계

- 오병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2. 우리나라 제도에 바람직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수가급여 관리체계
-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토론자 : 연병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김도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강홍조 (초정노인병원)

2. 2003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일 시 : 2003년 11월 28일(금) 14:00~17:50

장 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

내 용 : 1페이지 참조

3. 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03 CME Curriculum : 노인환자의 진료를 위한 임상술기 훈련 IV(신체상태의 평가와 관리)

교육 목적 : 참여자들은 노인환자들의 신체적 문제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신체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치료지침을 진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내용 :

1. 내과적 진찰방법과 검사결과의 해석과 평가
2. 노인에서 흔한 신체적 질병과 그 치료 약물의 작용과 영향에 대한 이해
3. 노년기 환자의 만성질환, 동통, 요실금에 대한 이해와 관리지침

일 시 : 2003년 11월 29일(토) 오후 1:00~6:00

장 소 : 서울대학교병원 A강당

| | | |
|-------------|---------------------------|----------------|
| 13:00~13:50 | 등록 및 점심식사 | |
| 13:50~14:00 | 인사말 | 이사장 박종한 |
| [제1부] | | 좌 장 : 가톨릭의대 이철 |
| 14:00~14:40 | 노인환자의 신체 진찰 | 한림의대 노용균 |
| 14:40~15:20 | 노인환자의 임상 검사 해석 | 경희의대 원장원 |
| 15:20~16:00 | 노년기 만성 질환의 관리지침 | 울산의대 이영수 |
| 16:00~16:20 | Coffee Break | |
| [제2부] | | 좌 장 : 중앙의대 기백석 |
| 16:20~16:50 | 노인환자의 요실금에 대한 관리지침 | 울산의대 주명수 |
| 16:50~17:30 | 노인환자의 동통에 대한 관리지침 | 서울의대 김용철 |
| 17:30~18:10 | 노인환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약물과 그 관리지침 | 한림의대 유형준 |

※ 모든 강의시간의 마지막 5분은 Q & A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자들은 할당된 강의 시간의 5분전에 강의를 끝내 주시고, 참여하시는 수강자들은 질문내용을 미리 진행요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등록비: 구 분 사전등록 당일등록

전문의 5만원 7만원

전공의 3만원 5만원

연수평점이 있으며, 연수교육 이수한 인증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4.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 섭외이사회 소식 •

• 대국민 치매강좌 중간 보고

◀ 일 정 ▶

- 3월 : 서울 - 기백석 선생님 (서울약수노인복지관 : 60명)
- 4월 : 인천 - 조성진 선생님 (인천중구노인복지관 : 120명)
- 5월 : 대전 - 김영돈 선생님 (대전서구노인복지관 : 110명)
- 6월 : 광주 - 이 훈 선생님 (광주남구노인복지관 : 100명)
- 7월 : 대구 - 김희철 선생님 (경북 봉화군 보건소 : 107명)
- 9월 : 서울 - 김도관 선생님 (삼성서울병원 대강당)
- 11월 : 전북 - 김재현 선생님 (예정)
- 12월 : 경남 - 조 웅 선생님 (예정)

시 기 : 매월 3~4번째 수요일 오후에 실시(연자선생님과 협의)

장 소 : 지역노인종합복지관

후 원 : (주)한국 에자이

• 국제이사회 소식 •

• 2004년도 국제학회 일정입니다.

The 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

18-21 July 2004, Philadelphia, PA USA

Website : [http : //www.alz.org/internationalconference/](http://www.alz.org/internationalconference/)

AAGP 17th Annual Meeting

21-24 February 2004, Baltimore, Maryland, USA

Website : [http : //www.aagpmeeting.org/](http://www.aagpmeeting.org/)

IPA Latin American Regional Meeting

26-29 May 2004, Santiago, Chile

Website : [http : //www.ipa-online.org/ipaonlinev3/home/default.asp](http://www.ipa-online.org/ipaonlinev3/home/default.asp)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

8-11 September 2004, Seoul, Republic of Korea,

Website : [http : //www.ipa-online.org/ipaonlinev3/home/default.asp](http://www.ipa-online.org/ipaonlinev3/home/default.asp)

8th World Congress of Biological Psychiatry

9-13 February 2004, Sydney, Australia

Website : [http : //www.icms.com.au/wfsbp2004/](http://www.icms.com.au/wfsbp2004/)

8th International Montreal/Springfield Symposium on Advances in Alzheimer Therapy

14-17 April 2004, Montreal, Canada

Website : [http : //www.siumed.edu/cme/geneva.htm](http://www.siumed.edu/cme/geneva.htm)

157th 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6 May, 2004, New York, NY, USA

Website : [http : //www.psych.org](http://www.psych.org)

CINP, 24th Congress of the Collegium Internationale Neuro-Psychopharmacologicum

20–25 June 2004, Paris, France

Website : [http : //www.vanderbilt.edu/CINP](http://www.vanderbilt.edu/CINP)

ADI 2004, Int'l Conference on Alzheimer's Disease

fall 2004, Kyoto, Japan

Website : [http : //www.alz.co.uk/](http://www.alz.co.uk/)

17th ECNP Congress

9–13 October 2004, Stockholm, Sweden

Website : [http : //www.ecnp.nl](http://www.ecnp.nl)

무임소이사회 소식 ·

■ 2003년도 하반기 노인정신의학 관련 신간 안내 ■

- ❑ *Comprehensive Textbook of Geriatric Psychiatry, Third Edition*
by Joel Sadavoy (Editor), et al (Hardcover–March 2004), \$140.00
- ❑ *Geriatric Psychiatry (Review of Psychiatry Series, Vol 22 Part 4)*
by Alan M. Mellow (Editor) (Paperback–May 2003), \$31.95
- ❑ *Organisation of Conceptual Knowledge in the Brain: Neuropsychological and Neuroimaging Perspectives*
by Alex Martin, Alfonso Caramazza (Hardcover–August 2003), \$75.00
- ❑ *Alzheimer's Disease and Related Disorders Annual, 2004*
by Serge Gauthier (Editor), et al (Hardcover–January 2004), \$120.00
- ❑ *Learning to Speak Alzheimer's: A Groundbreaking Approach for Everyone Dealing with the Disease*
by Joanne Koenig Coste (Author) (Hardcover–November 2003), \$16.80
- ❑ *Alzheimer's Disease: The Physician's Guide to Practical Management*
by Ralph W. Richter (Editor), et al (Hardcover–October 2003), \$99.50
- ❑ *The Scientific Basis for the Treatment of Parkinson's Disease*
by Nest Galvez-Jimenez (Hardcover–May 2004), \$89.95
- ❑ *Molecular Mechanisms of Parkinson's Disease*
by Philipp Kahle (Hardcover–January 2004), \$139.00
- ❑ *Clinical Atlas of Parkinson's Disease*
by David Nicholl, Adrian Williams (Hardcover–December 2003), \$150.00
- ❑ *Organic Chemistry: Structure and Function*
by K. Peter C. Vollhardt, et al (Hardcover–August 2003), \$146.30
- ❑ *Drug Therapy for Stroke Prevention*
by Julien Bogousslavsky (Editor) (Hardcover–July 2003), \$99.95
- ❑ *Pharmacy Practice*
by Kevin M. G. Taylor, et al (Hardcover–June 2003), \$100.00
- ❑ *Th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Textbook of Psychopharmacology*
by Alan F. Schatzberg (Editor), Charles B. Nemeroff (Editor) (Hardcover–November 2003), \$149.00
- ❑ *Geriatric Pharmacology*
by Rubin Bressler, Michael Katz (Paperback–March 2004), \$55.00

- ❑ *The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Textbook of Geriatric Psychiatry*
by Dan G. Blazer (Editor), et al (Hardcover-January 2004), 가격미정
- ❑ *Transitions in End of Life Care: Hospice and Related Developments in Eastern Europe and Central Asia (Facing Death)*
by David Clark, et al (Paperback-December 2003), \$34.95
- ❑ *Cognitive Analytic Therapy and Later Life: A New Perspective on Old Age*
by Jason Hepple (Editor), Laura Sutton (Editor) (Hardcover-January 2004), 가격미정
- ❑ *The Neuropathology of Dementia*
by Margaret Esiri (Editor), et al (Hardcover-May 2004), \$340.00
- ❑ *Cerebrovascular Disease, Cognitive Impairment and Dementia*
by John O'Brien, et al (Paperback-December 2003), \$63.95
- ❑ *Practical Guide to Dementia : Diagnosis, Investigation and Treatment*
by Jeremy M., Md. Brown (Paperback-May 2004), \$60.00

· 편집위원회 소식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

- 노인정신의학 제 7 권 제 1 호가 정시(2003년 6월 30일)에 발행되어, 회원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읽어 보시고 Feedback 주시기 바라오며, 참고로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정신의학 제 7 권 제 1 호 (2003년 6월 30일 발행)

목 차

[편집인의 글]

늬음은 하나님의 선물

전진숙

[특별기고]

한국 노인정신의학의 미래

박종한

[영상으로 본 노인정신의학]

Tom Arie와의 대화

오병훈

[특 집] 노인 환자에서 정신작용약물의 사용 지침

노인 수면장애의 약물치료

김린

노인성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지침

이동영

불안증상을 보이는 노인환자들에 대한 약물치료지침

오강섭

임상의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노인 약물치료의 사례와 그 대처 방안

오병훈

[원 자]

치매에서 산화스트레스의 혈액지표

전진숙 · 정홍채 · 김인성 · 오병훈

치매환자의 혈액에서 Ubiquitin 결합 단백질의 분리와 확인

김현수 · 전진숙 · 오병훈 · 이송재

뇌졸중 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현철 · 김도훈 · 김세주 · 문유선 · 김홍철

[증 례]

치매에서 과다성행동

전진숙

[서 평]

신경정신의학, 신경심리학, 그리고 임상신경과학

김도훈

근거에 기초한 치매 실제

배재남

- 현재 저희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노인정신의학 제 7 권 제 2 호의 발행을 위한 원고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투고 마감일은 10월 30일입니다. 날짜를 지켜주셔서 학회지가 정시(2003년 12월 31일)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노인정신의학 제 8 권 제 1 호(2004년 6월 30일 발행 예정)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호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회원들께서는 2003년 11월 30일 까지 이메일(cheonjs@kosin.md)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정신의학 제 8 권 제 1 호부터 학회지 표지를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임 편집위원장님들에 대한 예우로 제 7 권 1호와 제 7 권 2호는 종전의 도안을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학회지의 크기와 표지의 도안과 색을 변경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이 역시 2003년 11월 30일 까지 이메일(cheonjs@kosin.md)로 의견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지 전체 크기 | 글자크기 | 색 | 깔 | 도 | 안 |
|---------------------|-----------|------|---|---|---|---|
|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 | | | | | |
| 바꾸면 좋겠다. | | | | | | |
| 어느 경우건 상관없다(잘 모르겠다) | | | | | | |

해외연수기 •

영국 Institute of Psychiatry

김 재 민 (조선의대 정신과)

나는 2000년 9월부터 약 1년간 영국의 Institute of Psychiatry에서 연수를 하였다. Institute of Psychiatry는 보통 줄여서 IOP라고 부른다. IOP는 크게 University of London에 속하는 King's College in London의 부속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우리말로 옮기자면 '국립 정신의학연구소'라고 할까? IOP의 바로 옆에는 병설 Maudsley 병원이 있다. IOP와 Maudsley 병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의국과 병동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정신과 전문인력(교수 및 연구원)은 약 1,000명으로, 정신과 단일기관으로만 따져서는 미국의 NIMH 다음으로 많은 인력들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조직으로 세분화 되어, 정신의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IOP의 인력과 조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iop.kcl.ac.uk/iop/home.shtml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나는 그 가운데 노인정신과(Section of Old Age Psychiatry)와 역학과(Section of Epidemiology)에 소속되어 연수하였다.

내가 연수를 하게 된 동기와 연수지역으로 IOP를 택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싶다. 군의관 생활을 마친 1999년에, 전문의로 처음 일하게 된 곳은 대형 정신병원이었다. 그곳에서 노인병동을 맡아 노년기 치매나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였다. 그러나 노인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이 부족하고, 책에 있는 내용이나 학회에서 배운 것을 진료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정신의학 수련의 필요성을 느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노인정신의학 fellowship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병원이 없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연수를 고려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미국으로의 연수를 희망하였다가, 영국의 IOP로 방향을 돌렸는데 그 이유는 2가지였다. 첫째, 당시 나는 환자를 보는 임상수련을 원하였는데 미국의 병원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영국은 영국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IELTS라는 영어시험에 합격하면, 그곳 team의 일원이 되어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둘째, 나는 치매 뿐 아니라 노년기 정신질환 전반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치매에 대한 진료 및 연구는 Alzheimer Disease Research Center를 중심으로 신경과 의사에 의해 주도되었다. 따라서 신경과로 연수를 가게 되면 노년기 정신질환이 부족하고, 노인정신과를 택한다면 치매가 아쉬웠다. 한

편 영국에서는 Old Age Psychiatry 분야에서 치매를 비롯한 노년기 정신질환 전반을 다루고 있었다.

임상적으로 Dr. Michael Philpot라는 Old Age Psychiatrist의 team에 속하여 Maudsely 병원의 노인병동과 그에 속하는 catchment area 내의 환자들을 보았다. 영국에서는 레지던트를 SHO(Senior Hospital Officer)라고 부른다. SHO 3년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MRCPsych(Member of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가 된다. 이들 대부분이 3년의 분과 전문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들을 Specialized Registra라고 한다.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각 분과의 Consultant가 되어 team을 이끌게 된다. 한 team에는 보통 Consultant, Specialized Registra, SHO가 각 1명씩 있으며, 이외에도 사회사업가, 지역사회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가 부수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환자 보는 방식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달랐다. 무엇보다 환자를 정해진 치료 알고리즘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로 보는 것 같았다. 아마 노인환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진단 및 치료를 하는데 보다 생물학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둘째,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치료팀이 함께 접근하여, 환자의 증상은 물론 환자의 가족, 사회적 지지, 경제적 여건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치료에도 적용하였다. 셋째, 이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자 위주의 치료적 접근을 하였다.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진이 직접 집에 찾아가 진료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낮병원이나 거주시설을 알선해 주었다. 우리나라와는 다른 의료환경과 의료 전달체계에 깊은 인상을 받아, 연수 초반에는 임상훈련을 열심히 하였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자 반복되는 일과 때문에 지루해졌다.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훈련을 그만 받아도 귀국하여 응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외연수를 할 때 임상훈련은 오래 할 필요가 없다는 선배들의 말이 옳은 것으로 여겨졌다.

IOP를 비롯한 영국의 학문적 직위는 Researcher(연구원), Lecturer(전임강사), Senior Lecturer(조교수), Reader(부교수), 그리고 Professor로 나뉜다. 연구비 취득 및 연구결과 실적에 따라 2단계씩 뛰어서 진급하기도 한다. 내가 처음 연수를 계획할 때는 연구를 목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연구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수를 오기 직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느라고, 광주광역시 일부 노인들에 대한 역학연구를 시행하였었고, 그 dataset을 가지고 있었다. IOP에서는 학술모임이 매일같이 열리며, 그 중에는 자신들의 연구를 발표하는 모임도 많았다. 거기에 몇 번 참석해보니, 내가 한국에서 시행했던 연구도 잘 쓴다면 외국저널에 투고해볼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Rob Stewart라는 연구자의 발표내용은 내가 했던 연구와 설계가 비슷하였다. 그는 역학과에 속한 researcher였는데, IOP의 역학과는 치매를 비롯한 노인정신질환에 대한 역학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다. 그와 만나 내가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 상의하였고 논문을 작성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솔직히 그 전까지 나는 연구나, 논문 쓰기에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 때부터 참고문헌의 검색 및 정리, 연구가설 세우기, 자료의 통계처리 및 결과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추론 등을 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워갔다. 함께 협력했던 Rob이 노인정신의학 역학을 모두 전공하였고,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또 연배가 나와 비슷해 궁금한 점은 격의 없이 물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11편의 논문을 썼는데 이제 모두 출판되었다.

IOP의 역학과 과장은 Martin Prince이다. 그는 10/66 Dementia in Developing Countries Research Program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치매역학조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조사는 그들이 개발한 평가도구를 각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연수 후반기에 Martin과 상의하여 10/66 program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그들의 평가도구를 한국어판으로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귀국 직후 운 좋게도 그 Project를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를 보다 확장한 추적조사까지 시행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작부터 그들과 연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 지금까지 협력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 때문에 최근에 IOP로부터 Honorary Senior Lecturer로 임명되는 영광을 받기도 하였다.

영국에서의 연수생활은 나의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것을 통하여 임상가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거듭 난 느낌까지 받는다. 연수의 시작은 좋은 임상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만, 연수가 끝날 무렵부터는 열성적인 연구자가 되고픈 꿈을 가지게 되었다. 질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의학의 발전에 공헌하고 싶었다. 귀국한 후 정신병원에 다시 복귀하였는데, 연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academic position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

고, 그래서 지금은 대학에서 일하고 있다.

무엇이든 새로운 시도는 미처 예측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매력적이다. 하지만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IOP에 있던 동안은 힘든 때도 외로운 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곳 IOP나 런던에서의 생활이 몹시 그리울 때가 있다. 특히 모든 잡념을 잊고 공부와 연구에만 몰두했을 시절을 해외연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IOP는 적극 추천하고 싶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 해외학회 참관기 •

제 차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참관기

김 희 철 (계명외대)

제 11 차 IPA 학술대회는 8월 17일에서 22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학회를 앞두고 몇 주 전부터 발표할 포스터 준비로 분주한 날을 보내오던 중에 출국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심한 목감기를 앓았다. 이로 인해 혹시 일정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평소에는 복용하지 않던 항생제 등 약물을 열심히 복용했으나 별 호전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출국 당일에도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채 장시간의 비행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내에서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가능한 많은 시간을 잠으로 보충하려 했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평소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던 13시간가량의 비행 끝에 시카고의 O'Hare 공항에 도착하였다. 시카고를 생각하면 먼저 몇 가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1920년대 유명한 갠단 두목인 알 카포네가 연상되고 재즈 음악과 함께 뮤지컬 시카고도 떠오른다. 시카고는 5대호의 중심인 일리노이 주에 위치하며 뉴욕, LA와 함께 미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고 최대의 가축시장, 축산물가공센터, 곡물거래소 등이 있다. 이곳은 링컨과도 관련이 많은 곳이다. 일리노이 주의 자동차 번호 판에는 "Land of Lincoln"이라고 써여있다. 링컨은 켄터키에서 출생했지만 21살에 일리노이 주로 이주하여 주 하원으로 선출된 후 정치가로서의 길을 걸었고 정치적 활약의 무대는 일리노이 주였던 것이다.

첫째 날인 8월 17일 일요일 저녁 6시에는 학회에서 준비한 환영 리셉션이 있었다. 외국 학회에 참석을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친교를 위한 이러한 사교적 모임이 매우 자연스럽게 밝은 분위기라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거리낌 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모습들이 쉽게 눈에 띈다. 리셉션이 무르익을 즈음에 국내에서 참가한 다른 선생님들을 대부분 만날 수 있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들 중에는 박종한 이사장, 연병길 차기이사장, 오병훈, 이민수 부이사장, 윤진상 감사, 전진숙 학회지편집위원장, 정한용 기획이사, 이창욱 국제이사, 김재현, 서국희 평이사 그리고 총무간사인 나를 포함하여 11명이었다. 그 외 국립나주병원장이신 김명규 선생님을 비롯하여 김도훈, 김재민, 배재남, 서정석, 이남진, 전용호 선생님 등이 참가하였다. 이번 학술대회 모임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 2004년 9월 8일부터 나흘 동안에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주관한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이 서울에서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번 학회 기간동안에 이에 대한 실무준비위원들의 모임도 있었으며, 이사장님이하 여러 이사들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IPA 회원국 중에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에서 참석한 회원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이는 내년도 국제대회를 앞둔 우리 학회로서는 고무적인 일이었다. 환영 리셉션은 친교를 위한 사교 모임이기에 적당한 알코올이 분위기를 돋구어 줄 수 있다. 술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평소 맥주의 종류에는 무관심했던 나로서는 제일 익숙한 Heineken에 손이 가게 되었다. 우리 팀들이 둥근 탁자에 둘러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맥주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에 정한용 선생님이 Samuel Adams Triple Bock이라는 맥주를 추천하였고 곧 이어 이민수 선생님도 이 맥주의 맛에 대해 호평을 하였다. 나는 이 맥주의 이름도 처음 들어 보던 차에 곧바로 시음을 해보았다. 맥주 한 모금을 입안에 머금자마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독특한 향과 맛이 미각을 자극하였다. 지금도 그 당시의 강렬한 느낌이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다.

둘째 날인 8월 18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학술모임이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학술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오전 6시30분부터 2시간은 morning satellite symposium 시간으로서 제약회사의 후원으로 이루어

어지며 조식으로 햄버거나 샌드위치, 음료, 과일, 커피 등이 제공되고 심포지엄 내용도 알찬 것이 많았다.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고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는 symposia, plenary session 등이 진행되었고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poster session이 배정된 점 등은 국내 학술회와 동일하였다. 저녁 5시 45분에서 7시 15분까지는 제약회사 sponsor의 evening satellite symposia가 진행되었다. 저녁 7시 30분 이후에는 social meeting 위주로 편성이 되었다.

이번 제 11 차 IPA 학술회는 약물 개발, 분자생물학 및 게놈 프로젝트의 새로운 방법과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clinical insight를 제공해주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적인 조명을 하였다. Symposia는 같은 시간대에 여러 방에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진 주제를 선택해서 들어볼 수밖에 없었다. 8월 18일에는 주로 bipolar disorder, fronto-temporal dementia, late-life mood disorder, delirium, genetics, vascular cognitive impairment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았다. 이날 오후 symposia 중에서 『New technology and new possibilitie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시간에는 국내에서 서국희 회원이 'Cognitive assessment and reference diagnosis system(CARDS) : a new computerized instrument for clinic and population use'의 연재를, 오병훈 회원이 'The effect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training on cognitive function of elderly dementia patients'의 연재를 각각 구연으로 발표하였다.

셋째 날인 8월 19일 화요일에는 주로 clinical neuroscience와 new technology의 주제 쪽에 관심을 가지고 들었으며 임상적인 주제로는 mild cognitive impairment(MCI)에 대해 흥미를 갖고 공부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치매의 비약물학적 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session이 있었는데, 치매 환자에게 향기 요법을 시행한 연구와 빛 치료를 시행한 연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흥미로웠다. 이날 저녁 7시 30분에는 주최측에서 제공한 대형버스를 타고 학회장소에서 약 15분정도 거리에 떨어져 위치한 『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에서 Gala Reception이 있었다. 이곳은 1893년 세계 박람회 때 건설된 박물관으로, 과학 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 전시하고 있다. 아폴로 8호 사령선, 독일 잠수함, 스페이스 셔틀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과학박물관의 로비에서 저녁식사와 함께 Folk dancing 공연이 있었다. 공연 단원은 전부 노인들이었고 남녀 한 쌍씩 짝을 이루어 민속춤을 추는데 보기에 좋았고 인상적이었다.

넷째 날인 8월 20일 수요일에는 『Challenges in the delivery of psychogeriatric services』 주제의 symposia가 있었는데 각국의 노인정신의학 서비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서국희 회원이 'Psychogeriatric service in Korea'라는 주제로 구연 발표하였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청중이 별로 없었고 각국의 연재를 발표할 때만 해당 국가의 참석자가 다수 경청을 하였다. 저녁에는 우리 학회 임원진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점심시간에 미리 사전 답사를 위해 몇 군데의 마땅한 음식점을 돌아보다가 학회 장소에서 도보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을 예약해 두었다. 식당 이름이 SZECHWAN이었는데 발음하기도 힘이 들고 그 뜻도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 귀국해서 그 뜻을 찾아보니 Szechwan은 중국의 사천성(四川省)을 가리키는 중국어 SiChuan의 남방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초 저녁 식사 계획은 Chicago Sears Tower의 전망 레스토랑에서 시카고의 멋진 야경을 구경하며 모임을 가지려 했으나 박종한 이사장님의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드러운 중국 음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곳에서 몇 가지 요리와 함께 중국술을 주문하였는데 오량액(五糧液)이라는 술이었다. 글자 중에 糧자가 생소해서 주인에게 물어보니 양식 糧자와 동일한 한자로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글자라고 했다. 중국 술중에는 비교적 고급에 속한다고 했는데 과연 술맛이 일품이었다.

다섯째 날인 8월 21일 목요일에도 한국에서 두 명의 회원이 구연 발표를 하였다. 김재민 회원이 'Evaluating association between mitochondrial aldehyde dehydrogenase genotypes and Alzheimer's disease in Korean elders'의 주제를, 전진숙 회원이 'Blood markers of oxidative stress in dementia'의 주제를 발표하였다. 오병훈 회원은 『Approaches to depression』 주제의 symposia에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출국 전에 미리 짜여진 스케줄이 이날은 시카고 근교의 관광으로 잡혀 있어 나를 포함한 일부 회원들은 부득이 학술행사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의 세분 선생님께는 매우 죄송스러웠다. 대략 둘러본 장소는 시카고대학, 노스웨스트대학, 시카고 근교의 부유층 거주지역, Baha'i Temple 등이었다. 이 중에서 인상 깊은 곳은 시카고대학이었다. 이 대학은 시카고 다운타운 남쪽 10Km에 걸친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는 명문 대학이다. 과거 한때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쇄직전까지 갔다가 1890년 Rockefeller

의 기부금으로 기사화생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었다고 한다. 고풍스런 건물과 넓고 시원한 캠퍼스가 인상적이었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의과 대학과 물리학 연구소의 수준은 세계적이다. 1942년 엔리코 페르미가 세계 최초로 핵 연쇄반응에 성공한 연구소가 있고, 이것을 기념한 헨리 무어의 조각 『Nuclear Energy』도 있다. 관광도중에 가이드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시카고는 겨울이 길고 바람이 많이 부는 도시로 개발 초기에는 집을 대부분 목재로 지었다고 한다.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거의 모든 도시가 한꺼번에 불타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계획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지금은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건물 하나하나가 독특한 기법의 아름다운 건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다음 기억에 남는 것은 Baha’i Temple이었는데, Baha’i 教는 Bahaulah라는 사람이 창시한 종교로서 일종의 회교도인 듯하지만 정확한 역사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사원은 돔 모양으로 특이하였고 평소 氣가 센 사람은 사원 안에 들어오면 우주의 氣運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다. 관광을 마친 후 저녁에는 박종한 이사장님이 이번 학회에 참석한 회원들을 위해서 마련한 저녁 식사 모임에 참석하였다. 국내에서 참석한 다른 팀들과는 달리 우리 학회 임원들이 포함된 팀은 목요일 일정을 끝으로 다음날인 10월 22일에 떠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회 마지막 날을 자축해서 한 국식당으로 장소를 정하였다. 예전에는 시카고 시내에 한국 음식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거의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하여 몇 군데 식당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랜 맛에 김치와 불고기, 소주 등을 곁들여 식사를 하니 그동안 거북했던 위장이 말끔히 씻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몇 사람(정한용, 이남희, 그리고 나)이 서로 의기투합하여 시카고의 명물인 Jazz Bar를 경험하기로 하였다. Blue chicago라는 유명한 Jazz Bar가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 보니, 그곳에는 이미 서국의 회원들을 비롯한 여러 혈기왕성한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고 계셨다.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 연수 동안에 뉴욕 맨해튼의 소호 거리에서 Jazz Bar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 친구의 권유로 Jazz를 처음 접하기는 했지만 은은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감동은 잊을 수가 없었다. Jazz의 역사는 미국의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전쟁이후 일자리를 잃게 된 흑인들은 그 당시에 마을의 행사나 백인들의 파티에서 연주를 해주고, 또는 술집 같은 곳에서 연주를 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New Orleans Jazz’의 시작이라고 한다. 뉴올리언스에서 시작된 재즈 음악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점차 시카고로, 뉴욕으로, 캔사스 시티로, 펜실베이니아로... 전국 각지로 흩어졌다고 한다. 재즈 음악은 아시다시피 Saxophone, Piano, Trumpet, Guitar가 한데 어우러져 멋진 멜로디를 만들게 된다. 여느 Jazz Bar와 마찬가지로 Blue chicago의 내부는 좁고 허름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Jazz Bar로서의 오랜 역사를 반영해주는 듯 하였다.

이번 시카고 학술대회는 국내의 불경기로 인해 많은 선생님들이 자비로 참석하셨다. 그렇지만 6편의 구연 발표와 16편의 포스터 발표 등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참석한 회원들이 가장 많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박종한 이사장님, 연병길 차기이사장님, 오병훈, 이민수 부이사장님, 전진숙 학회지편집위원장님, 그리고 서국희 이사님 등은 2004년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IPA Asia Pacific Regional Meeting의 준비를 위해 학회기간 내내 분주하게 움직이셨고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앞으로 우리 학회 회원 모두도 얼마 남지 않은 내년의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될 것이다.

• 회원동정 •

▷ 오병훈 부이사장(연세의대) :

- 2003년 8월 18일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IPA)의 11th International Congress (2003년 17~22일, 시카고, 미국)에서 ‘The effects of cognitive rehabilitation training on cognitive function of elderly dementia patients’의 연제를 구연발표 하였고 8월 21일에는 Approaches to depression』 주제의 symposia에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 전진숙 편집위원장(고신의대)

- 2003년 8월 21일에 IPA의 11th International Congress의 “New Data on the Application of Translational Research to Patient Care” symposia에서 “Blood Markers of Oxidative Stress in Dem-

entia”의 연재를 구연발표 하였습니다.

▶ 정한용 기획이사(순천향의대)

- 2003년 8월 20일에 IPA의 11th International Congress에서 “The relationship of somatization, somatosensory amplication, and symptom interpretation : focused on elderly patients”를 발표하였습니다.

▶ 서국희 편집위원(한림의대)

-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의 Board of Directors(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2003년 8월 18일 IPA의 11th International Congress에서 ‘Cognitive assessment and reference diagnosis system(CARDS) : a new computerized instrument for clinic and population use’의 연재를 구연발표 하였습니다.

▶ 김재민 회원(조선의대)

- 노년기 우울증을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일련의 논문들의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수여하는 2003년도 ‘GSK 젊은 의학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치매를 비롯한 노년기 정신질환에 대한 16편의 논문을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에 출판한 연구실적을 인정받아, International College of Geriatric Psychoneuropharmacology (ICGP)에서 수여하는 2003년도 ‘International Junior Investigator Award’ 수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ICGP Annual meeting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2003년 8월 21일에 IPA의 11th International Congress에서 ‘Evaluating association between mitochondrial aldehyde dehydrogenase genotypes and Alzheimer’s disease in Korean elders’를 구연발표 하였습니다.

▶ 정인과 회원(고려의대)

- 2003년 10월 10일자로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 주소변경

- 곽경필 회원 :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50 경북대학교병원 정신과, ☎ 053-420-5746
- 이 훈 회원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8-9 광주삼성병원 정신과, ☎ 062-519-9270
- 김석대 회원 : 대전시 동구 삼성동 118-5 동대전정신병원, ☎ 042-272-8882
- 이승휘 회원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376-4 민들레병원 정신과, ☎ 031-974-6400

▶ 신입회원

- 이광현 : 경북 경주시 석장동 1090-1 신경정신과, ☎ 054-770-8212
- 한경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142-12 영광기독신화정신병원, ☎ 061-350-7117
- 이원익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9-1 반포쇼펍타운 4동 302호 화인의원, ☎ 02-599-1931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처

135-74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1-1 지방공사 강남병원 정신과

신 영 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총무이사)

전화 : 02-3430-0650, FAX : 02-554-9809, E-mail : narae@kangnamhosp.or.kr

신상에 관한 변동사항이나 다른 회원들에게 알리고 싶은 일(해의학회 발표나 논문게재 등)에 관해서는 총무간사(김희철, E-mail : mdhck@dsmc.or.kr, ☎ : (053) 250-7813, Fax : (053) 250-78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2003~2004)

| | TEL | FAX | E-MAIL |
|---------------|--------------------|---------------|------------------------------|
| 고 문 : 곽동일 | 051) 601-7700 | | ambrsek_kr@yahoo.co.kr |
| 유계준 | 02) 323-9197 | | |
| 이형영 | 062) 220-6146 | 062) 225-2351 | hylee@chonnam.ac.kr |
| 이 사 장 : 박종한 | 053) 650-4785 | 053) 623-1694 | jpark@cataegu.ac.kr |
| 차기이사장 : 연병길 | 02) 2224-2268 | 02) 487-0544 | knpa@hallym.or.kr |
| 감 사 : 기백석 | 02) 2260-2258/2172 | 02) 2279-8474 | cauhpkbs@cau.ac.kr |
| 윤진상 | 062) 220-6142 | 062) 225-2351 | jsyoon@chonnam.chonnam.ac.kr |
| 부 이 사 장 : 오병훈 | 031) 797-5745 | 031) 763-5745 | drobh@chol.com |
| 이민수 | 02) 920-5354/5815 | 02) 923-3507 | leeminso@korea.ac.kr |
| 총 무 이 사 : 신영민 | 02) 3430-0695 | 02) 554-9809 | narae@kangnamhosp.or.kr |
| 간 사 : 김희철 | 053) 250-7813 | 053) 250-7810 | mdhck@dsmc.or.kr |
| 학 술 이 사 : 김도관 | 02) 3410-2380 | 02) 3410-0050 | paulkim@smc.samsung.co.kr |
| 간 사 : 정기립 | 02) 361-6100 | 02) 361-7745 | |
| 한명일 | 063) 232-8881 | 063) 288-2870 | drhan@unitel.co.kr |
| 위 원 : 김기웅 | 02) 760-2457 | 02) 744-7241 | psykim@chollian.net |
| 이동우 | 031) 592-6661 | 031) 592-6755 | dwlee@medigate.net |
| 기 획 이 사 : 정한용 | 032) 621-5232 | 032) 621-5018 | hanyjung@schbc.ac.kr |
| 간 사 : 유승호 | 02) 450-9678 | 02) 457-1012 | shryu@konkuk.ac.kr |
| 위 원 : 박인준 | 041) 579-9997 | 041) 579-9998 | brain-park@hanmail.net |
| 이동진 | 031) 372-9830 | 031) 372-9834 | LIDJ@chollian.net |
| 김동욱 | 02) 481-0690 | 02) 442-6466 | drdw@medigate.net |
| 교 육 이 사 : 김승현 | 02) 818-6740 | 02) 852-1937 | knnc@neuropsychy.co.kr |
| 간 사 : 권의정 | 031) 467-9243 | 031) 467-9256 | supportk@hanmir.com |
| 설 외 이 사 : 오강섭 | 02) 2001-2214 | 02) 2001-2211 | ks2485@lycos.co.kr |
| 간 사 : 류성곤 | 02) 2224-2694 | 02) 487-0544 | sgryu2002@yahoo.co.kr |
| 국 제 이 사 : 이창욱 | 02) 590-2789 | 02) 594-3870 | jihan@catholic.ac.kr |
| 무임소이사 : 김영돈 | 042) 220-8836 | 042) 259-1771 | ydkim@sunhospital.com |
| 평 이 사 회 : 강홍조 | 043) 213-7123 | 043) 213-7117 | dr_hckang@yahoo.co.kr |
| 김영훈 | 051) 890-6190 | 051) 894-2532 | npkyh@chol.com |
| 김재현 | 063) 840-6161 | 063) 840-6169 | wonkjh@wonkwang.ac.kr |
| 김창현 | 033) 261-6095 | 033) 260-3212 | chkimmd@unitel.co.kr |
| 민경준 | 02) 2260-2191 | 02) 2279-8474 | mind61@chollian.net |
| 서국희 | 02) 2639-5460 | 02) 677-9095 | suhgh@chollian.net |
| 이정희 | 033) 258-2310 | 033) 256-3344 | jhielee@kangwon.ac.kr |
| 이철 | 02) 590-2722 | 02) 594-3870 | cle512@catholic.ac.kr |
| 정희연 | 02) 840-2230 | 02) 831-0714 | hyjung@brm.co.kr |
| 조맹제 | 02) 760-2457 | 02) 744-7241 | mjcho@snu.ac.kr |
| 함웅 | 031) 455-3333 | 031) 452-4110 | hahm405@chollian.net |

| | TEL | FAX | E-MAIL |
|-----------------|---------------------|---------------|----------------------|
| 학회지편집위원회 | | | |
| 편집위원장 : 전진숙 | 051) 990-5070/6245 | 051) 241-5069 | cheonjs@kosin.md |
| 간사 : 조웅 | 055) 520-1310 | 055) 521-1410 | prozac99@naver.com |
| 위원 : 오병훈 | 031) 797-5745 | 031) 763-5745 | drobh@chol.com |
| 이민수 | 02) 920-5354/5815 | 02) 923-3507 | leeminso@korea.ac.kr |
| 정은기 | 02) 2204-0104 | 02) 3436-0895 | ekchg@unitel.co.kr |
| 정한용 | 032) 621-5232 | 032) 621-5016 | hanyjung@schbc.ac.kr |
| 김희철 | 053) 250-7813 | 053) 250-7810 | mdhck@dsmc.or.kr |
| 김도훈 | 033) 252-9970(교205) | 033) 256-6244 | dohkim@hallym.ac.kr |
| 배재남 | 032) 890-3474 | 032) 890-2817 | jnbae@inha.ac.kr |

노인정신의학 투고요청

대한노인정신학회에서는 매년 2회(6월, 12월)에 연구학회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원고의 종류는 사설/논설(Editorials), 특별기고/특집, 중설(Review Articles), 노인정신의학의 역사(History in Geriatric Psychiatry)-사진과 설명, 원저(Original Articles), 중례보고(Brief Reports), Communications(Letters to the Editor, Book Reviews) 등입니다. 특히 노인정신의학 분야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사진을 갖고 제신 회원께서는 설명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논문접수처 ≡

대한노인정신의학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노인정신의학” 편집위원장 전진숙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압남동 34번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신경정신과

전 화 : (051) 990-5070(외래), 990-6245(교수연구실)

전 송 : (051) 241-5069(교수연구실)

이메일 : cheonjs@kosin.md

원고를 보내주실 주소와 접수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마감일 : 제1호 2003년 4월 30일

제2호 2003년 10월 31일

주의사항 : 원본 1부와 디스켓, 사본 2부를 논문게재동의서(회보에 수록)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자우편으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회부납부 안내 •

연회비는 2만원입니다.

회비납부는 회원의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대한노인정신의학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

한미은행 116-86301-267

예금주 : 신영민(노인정신)

변동사항이 있거나 회보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승호 전 화 : (02) 450-9678

전 송 : (02) 457-1012

이메일 : shryu@konkuk.ac.kr

정한용 전 화 : (032) 621-5232

전 송 : (032) 621-5016

이메일 : hanyjung@schbc.ac.kr

노인정신의학 논문게재 동의서

논문제목 :

저 자 :

교신저자 성 명 :

소 속 :

주 소 :

전 화 :

팩 스 :

이 메 일 :

1. 저자의 책임, 자격기준, 기여 내용에 관한 사항

- 1) 논문의 독창성 및 중복, 이차게재 금지
- 2) 논문의 모든 내용, 연구수행과 논문작성 과정에의 기여와 이에 대한 책임

2. 연구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1) 본 연구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의 논문내 명시.
- 2) 본 연구와 이익 또는 손실에 연결되는 기관과의 관련 사항을 공개
관련사항 :

- 3) 본 연구와 이익 또는 손실에 연결되는 어떠한 기관과 무관.

3. 저작권 이양 동의

본 논문의 저작권과 이의 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 이양함에 동의합니다. 또한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필요시 편집위원회에서 원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 및 체재를 수정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논문의 저자로서 상기 사항을 읽고 내용에 동의하여 아래에 서명합니다.

| | | |
|-------|------|------|
| 성 명 : | (서명) | 날짜 : |
| 성 명 : | (서명) | 날짜 : |
| 성 명 : | (서명) | 날짜 : |
| 성 명 : | (서명) | 날짜 : |
| 성 명 : | (서명) | 날짜 : |
| 성 명 : | (서명) | 날짜 : |

본인은 교신저자로서 공동저자들의 동의 및 서명을 받아 본 게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교신저자 성 명 : (서명) 날짜 :

공동추계학술대회 및 제3회 전국 및진노인 시상식
고령화사회와 노인요양보장

장소: 서울대학교 대강당
주최: 보건복지부
협찬: 대한노인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2003년도 공동추계학술대회
(2003년 11월 7일)